

# 전북현대 월드컵 스타 '골맛'

K-리그 인천 유나이티드전 3-3 무승부  
 김신욱·이용 선발, 이재성은 후반 교체  
 후반 추가시간 김신욱 동점골로 마무리  
 전북은 승점 35로 선두자리 유지

월드컵 스타들을 모두 출격시킨 전북 현대와 인천 유나이티드가 6골을 주고받는 혈투 끝에 비겼다. 두 팀은 7일 오후 7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EB하나은행 K리그 2018 15라운드 경기에서 3-3 무승부를 기록했다.

2018 러시아월드컵을 뒀 문선민(인천), 김신욱, 이용(이상 전북)은 선발로 그라운드를 밟았다. 이재성(전북)은 후반 교체로 등장했다.

기선 제압은 문선민의 몫이었다. 문선민은 전반 6분 이운표의 패스를 받아 침착한 마무리로 선제골을 터뜨렸다. 득점 직후에는 K리그 홍보대사이자 인기 BJ 갑스트의 관제탑 댄스로 분위기를 달궜다. 공격수가 아닌 센터백으로 출전한 전북 김신욱은 여섯골 공 처리로 실점의 빌미를 제공했다.

3분 뒤 인천이 추가골을 터뜨렸다. 이번에는 무고사가 오른쪽 슈트로 골문을 열었다. 전북은 전반 13분 인천 골키퍼 정산의 반칙으로 얻은 페널티킥을 아드리야노가 성공해 한 골을 만회했다.

인천은 전반 30분 문선민의 두 번째 골로 다시 달아났다. 문선민은 수비 뒷공간을 파고들어 멀티골을 완성했다. VAR이 가동됐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이에 질세라 전북은 전반 41분 로페즈의 골로 2-3까지 추격했다.

후반 11분 변수가 발생했다. 인천 김동진이 스톤인 과정에서 시간을 끈다는 이유로 두 번째 yellow카드를 받았다. 수적 우위를 점한 전북은 동점골을 위해 거세게 몰아쳤고, 인천은 끈끈한 수비로 버텼다.

그대로 끝날 것 같던 후반 추가시간 김신욱의 동점골이 터졌다. 로페즈의 패스를 받은 김신욱이 텅 빈 골대를 향해 오른쪽 슈트로 마침표를 찍었다.

전북은 승점 35(11승2무2패)로 선두를 지켰다. 윤 안데르센 감독 부임 이후 첫 경기에 나선 인천은 문선민을 앞세워 대어사냥을 눈앞에 뒀지만 막판 고비를 넘기지 못했다. 인천은 승점 9(1승6무8패)로 11위에 머물렀다.

제주 유나이티드는 수원 삼성과의 원정경기에서 3-2로 이겼다. 전반 22분 선제골과 후반 42분 균형을 무너뜨리는 골을 뽑아낸 권한진이 이날의 영웅이 됐다.

제주는 승점 27(8승3무4패)로 2위를 꺾었다. 연이은 수비 실수에 고개를 숙인 수원(승점 25·7승4무4패)은 3위로 밀려났다.

경남FC는 포항 스틸러스의 추격을 2-0으로 뿌리쳤다. 전반 2분 만에 조재철이 시전 1호골로 리드를 안겼고, 후반 21분 네게바가 썩기를 보였다.

경남은 승점 25(7승4무4패)로 2위 제주에 2점 뒤진 4위를 기록했다. /뉴시스



KEB하나은행 K리그 클래식 2018 15라운드 전북현대와 인천유나이티드FC의 경기가 7일 전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실시된 가운데 전북현대 아드리야노 선수가 해딩경합을 하고 있다.



## 이한구, KPGA 전북오픈 선두

3R에서 버디 6· 보디 2개로 4언더파 67타

이한구(28)가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아투어 NS홈쇼핑 군산CC 전북오픈 셋째 날 단독 선두로 뛰어 올랐다.

이한구는 지난 7일 현재, 군산의 군산컨트리클럽(파 71)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버디 6개, 보기 2개를 쳐 4언더파 67타를 기록했다.

전날 4위였던 이한구는 중간합계 10언더파 203타를 기록해 단독 1위로 올라섰다. 이한구는 캐나다 교포 고석환(24)을 3타 차이로 따돌려 생애 첫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전반에 버디 3개를 잡아낸 이한구는 11, 12번 홀에서 연속 버디를 잡아내 기세를 올렸다. 13, 14번 홀에서 연속 보기를 범해 주춤했지만, 17번 홀에서 버디를 추가해 3라운드를 끝냈다.

이한구는 "열심히 했고 좋은 스코어를 기록해 기분 좋다. 후회 없는 하루였다. 어프로치 샷이 잘돼 경기 내내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었다. 마지막 조 근처에서 경기를 해본 게 처음이었다. 사진 및 방송 카메라도 많이 신경했다. 긴장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러지 않았다. 두 세 달전부터 골프 실력이 조금 늘었다. 이번주가 절정인 것 같다"고 웃어보였다.

생애 첫 우승을 다짐했다. 이한구는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을 것이다. 긴장하지 않고 하던 대로 플레이하겠다. 최선을 다해 좋은 경기를 하겠다.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 오늘처럼 편안함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 내일도 이 순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 조바심 내지 않겠다"고 말했다.

고석환은 1위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 이날 버디 3개를 잡았지만, 더블보기, 보기를 각각 1개씩 기록해 이븐파에 그쳤다. 중간합계 7언더파 206타를 기록했다.

이날 6타를 줄인 문경준(36)과 손준업(31), 강권일(37)은 공동 3위에 이름을 올렸다.

KPGA 선수권대회 우승자 문도엽(27)은 중간합계 5언더파 208타 공동 6위, 군산에서만 2승을 거둔 '군산 사나이' 주홍철(37)은 4언더파 209타로 공동 16위에 이름을 올렸다.

/뉴시스



## 할릴호지치 축구대표팀 감독 한국과 접촉

일본 축구대표팀을 이끌며 국내 축구팬들에게도 친숙해진 바히드 할릴호지치(66) 감독이 한국과 접촉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알제리 언론 DZnews는 7일(한국시간) 대한축구협회가 할릴호지치에게 감독 직을 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신재용 감독을 대신할 새 사령탑을 찾고 있다. 할릴호지치 감독은 이미 아시아에서 좋은 경험을 했다. 한국에 무척 매력적인 인물"이라는 것이다.

코트디부아르, 알제리 등을 거친 할릴호지치 감독은 2015년 3월부터 일본을 이끌었다. 2018 러시아월드컵 본선행 티켓을 따내는 데 성공했지만 정작 대회를 2개월 앞둔 지난 4월 전격 경질됐다. 자신 만의 색깔을 일본 축구에 입히려 노력했으나 월드컵 무대를 밟지 못한 채 중도 퇴진했다.

한국과도 인연이 있다. 2014 브라질월드컵에서 알제리 대표팀을 지휘한 할릴호지치 감독은 조별리그에서 홍명보 전 감독의 한국을 4-2로 완파했다. 한국은 알제리를 1승 제물로 노리고 대회에 임했지만 상대의 맹공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알제리전 패배로 한국은 16강 진출에 실패했다.

러시아월드컵에서 16강 진출에 실패한 한국은 10명 안팎의 후보군을 놓고 새 사령탑 영입 작업을 진행 중이다. 김관중 국가대표감독 선임위원장은 "외국인 지도자가 온다면 대륙 간접이나 빅리그에서 우수한 경험이 있는 감독이 좋겠다"며 "9회 연속 월드컵 진출에 성공한 한국 축구 수준에 걸맞은 감독이 필요하다"는 기준을 밝힌 바 있다. /뉴시스

# 남북통일농구, 3박4일간의 화합의 장 열었다

## 방북단 일정 마무리

조명균 통일부 장관 "교류 활성화 기여 기대"  
 팔렘방 단일팀 출전 여자농구팀에게 큰 의미

남북통일농구 방북단이 3박4일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단장을 맡은 남북통일농구 방북단은 태운 정부 수송기 2대가 지난 6일, 예정된 오후 4시부터 30분 늦게 평양 순안공항을 출발해 오후 5시 44분과 46분에 각각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허재 남자 대표팀 감독과 이문규 여자 대표팀 감독은 나란히 '평양'이라고 적힌 봉투를 가지고 내렸다.

선수단은 곧바로 수숙을 마치고 휴대폰을 다시 돌려 받은 뒤 6시20분께 버스에 올랐다. 남자 대표팀의 최진수는 "4일 동안 핸드폰이 없어서 답답했다. 없으니 손이 이상하더라"며 "이제 기사를 좀 보려고 하는데 배터리가 다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 장관을 비롯한 정부대표단과 남녀 선수단, 기자단, 중계방송팀 등 총 101명은 지난 3일 평양으로 가 방북 일정을 무사히 마쳤다.

통일농구 경기는 총 4차례 진행됐다. 4일 남녀 혼합 경기가 열렸고, 5일에는 남녀 친선 경기가 펼쳐졌다. 혼합 경기는 남북 선수들을 섞은 다음 평화팀과 번영팀으로 나눠 치렀다. 친선 경기는 남북 대결이었다.

통일농구 경기는 과거 1999년과 2003년 두 차례 있었다. 남북은 15년만에 다시 농구를 통한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수송기에서 내린 조 장관은 취재진 앞에서 "남측 선수단과 대표단을 따뜻하게 맞아준 평양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계속될 체육 교류가 판문점 선



지난 5일 오후 평양 류경주체육관에서 열린 남북통일농구경기를 마친 남북 선수들과 감독, 코치진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언 이행은 물론 남북 다른 분야 교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03년 선수로 통일농구에 참가했다가 15년만에 감독으로 다시 평양 땅을 밟은 허재 남자 대표팀 감독은 "15년 전과 큰 변화는 없었다. 체육관에서 두 경기를 했고, 호텔에만 머물러 밖에는 거의 나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여자 농구는 오는 8월 개최되는 2018 자카르타·팔렘

방 아시아게임에 단일팀으로 출전하기 때문에 이번 방북이 더 큰 의미를 지녔다. 여자 선수들은 혼합 경기를 통해 미리 손발을 맞춰왔다.

이문규 여자 대표팀 감독은 "센터를 보고 있는 로숙영을 포함해 3명이 눈에 띄었다"며 "아직까지 우리 선수들에게는 못 미치지만 개인 기술은 탁월했다. 조직적으로 훈련을 하다보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멤버"라고 북측 선수들을 평가했다. /뉴시스